

[사람+] 우리는 모두 이민자이자 순례자... 마음을 열어 주세요!

교구 이주사목위 부위원장 원고삼 베드로 신부(Fr. Peter Nguyen Cao Sam, SVD) 인터뷰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 동안 서울대교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한 이방인 신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원고삼 베드로 신부입니다.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1989년 미국에서 사제품을 받은 그가 선교사로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입니다. 이후 사제 생활 절반을 우리 교구 이주사목위(구 노동사목위) 산하 베트남 공동체에서 헌신했습니다. 최근, 수도회의 소임을 받아 로마로 떠난 지 2년 만에 또다시 한국을 찾은 원 신부는 올해 10월부터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목 중입니다. 인권 주일을 맞아 원 신부와 함께 '우리 교회와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대교구를 잠시 떠나 계시다 다시 저희와 이주민들 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웃음) 이 자리를 빌어 서울대교구의 이주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염수정 추기경님과 유경춘 주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교구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하셨는데,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소개해주세요.

베트남 공동체를 포함해 필리핀, 남미, 몽골, 태국 등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가 속한 '이주사목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식구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홀로 있지 않도록, 그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서로간에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 교구의 가톨릭교회와도 연결되도록 돕고 있죠. 이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도 저희의 일입니다. 성북구 보문동의 노동사목회관에 위치한 저희 센터는 이주노동자 상담실, 무료 한국어 교육,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업재해 등을 겪어 요양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 위험에 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긴급 보호시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과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위원장 이광휘 신부

님과 각 위원회의 신부님, 수녀님, 선교사, 봉사자가 함께하고 계시죠.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주민을 돌보신 신부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이주민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별히 가난한 이와 이민자, 난민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한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종종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들이 이주할 때는 자신들의 신앙, 문화, 전통도 함께 가져오게 되죠. 또 익숙한 환경과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며 그곳에 '새 고향'을 만들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신들의 신앙을 키우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민자들을 여러분의 곁으로, 교회로, 사회로 환대해 주신 교구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이 지구상의 '이민자이자 순례자'로서 주님의 왕국이 가진 풍요로움, 다양성, 일치의 모습을 드러내는 다문화적 삶과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낙하산'과 같습니다. 줄을 당겨야 펼쳐지는 낙하산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이웃에게 열려있어야 작동해요. 이주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를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려요.

서동경 안나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후원계좌

: 우리은행 454-006742-13-0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 관련 문의: 02)924-9970~1